

ASAN REPORT

결심체계를 뒤흔드는 인지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양욱

2025년 9월



Asan Report

**결심체계를 뒤흔드는 인지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양욱

2025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양욱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해왔다. 현장을 떠난 이후에는 TV와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여러 싱크탱크에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에서 군사전략과 전력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군사혁신론과 현대전쟁연구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목차

요약	06
I. 인지와 전쟁의 관계성	07
1. 인지의 이해	09
2. 인지전와 전쟁의 관계	11
II. 인지전이란 무엇인가?	13
1. 인지전의 정의	13
2. 인지전의 특징	16
3. 인지전의 다양한 스펙트럼	18
III. 현대전의 인지전	23
1. 미국의 인지전	23
2. 러시아의 인지전	24
3. 중국의 인지전	30
4. 이스라엘의 인지전	34
IV. 인지전 수행 방안	37
1. 인지전의 목적과 대상	37
2. 인지전의 수단	39
3. 인지전의 수행 방법	42
V. 미래 국방전략 발전을 위한 제언	46
참고문헌	48

그림

[그림 1] 인간의 인지체계	10
[그림 2] 제한용량의 인지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선택 과정	11
[그림 3] 정보환경의 '전달중심' 모델	15
[그림 4] 정보작전상의 심리전과 인지전 비교	17
[그림 5] 인지공격의 2가지 방법: 지연(좌)과 차단(우)	19
[그림 6] 단계에 의한 인지체계의 구성	20
[그림 7] 연역법-귀납법-귀추법 사이의 관계성	21
[그림 8] 러시아가 인지전을 위해 만든 젤렌스키의 가짜 영상과 원본 비교	29
[그림 9] 미국의 정보환경 모델(좌)과 중국의 미래 전쟁영역 모델(우)	32
[그림 10] 하마스의 오폭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지전 대응	36
[그림 11] 인지전 대상으로서의 전쟁지도부	38
[그림 12] SNS 사용자의 증가 추세 및 전망	40

표

[표 1] 재귀통제의 기법들과 효과	26
---------------------	----

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최근 전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지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인지전은 언론과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중국의 지속적인 희색분쟁 등과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당한 여론 및 인지조작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와 체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급부상하였다.

현대의 분쟁은 반드시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고서도 의도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위력과 정밀도가 향상되는 만큼 전쟁의 결과는 그만큼 더 참혹해지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부전승(不戰勝) 사상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략이다. 인지전은 바로 그러한 부전승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급격한 정보화혁명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오늘날, 뉴스 방송이나 신문보다 SNS 대화방이나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갖는 위력은 엄청나다. 사회의 모든 현상에 관한 인지가 기준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수단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지를 조작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판단과 의지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인지전의 시작이다.

비록 전쟁을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기선을 제압하는 데 있어 인지전의 역할은 막대하다.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즉 먼저 이긴 후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최소한의 희생으로 빠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지전은 평시부터 수행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그 효과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방의 요소가 된다. 21세기에도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는 끊임없이 인지전을 펼쳐오고 있다. 냉전 시절의 체제 대결도 인지전의 일환이었고, 소련 및 동구권 공산독재의 붕괴와 함께 우리는 승리를 자축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친북 권위주의 국가들에 위협을 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I. 인지와 전쟁의 관계성

전쟁은 국가의 의지를 강요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통상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넘어 분쟁의 상태로 접어들면, 이후부터는 의지의 투쟁이 된다.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하냐에 따라 분쟁으로 발전하고 외교 혹은 경제 무대에서 치열한 기선제압이 계속되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

2023년까지 우리는 2개의 전쟁을 목격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전쟁의 원인으로 인간의 본성, 국내 체제, 그리고 국제적 무정부성을 지적하였지만,¹ 국가는 언제나 스스로 전쟁을 결정한다. 전쟁의 내재적 동력에 관하여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이를 설명한다.

클라우제비츠는 국민, 정부, 군대의 3가지 요소를 전쟁의 핵심 동력으로 파악했다. 국민은 원초적 폭력과 증오와 적개심 등 맹목적인 감정을, 정부는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성을, 그리고 군대는 감정과 이성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때로는 확률로 때로는 운으로 이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국민-정부-군대의 3가지 주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경이로운 삼위일체가 전쟁을 수행한다.²

전쟁은 ‘정치의 연속’ 중에 선택한 ‘다른 차원의 수단’이다. 즉,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한다. 국가는 자신의 정신적·물질적 역량을 감안하여 국내외 정치상의 손익을 계산한 이후에 전쟁을 결정한다. 한편 국민은 인간이기에 갖는 다양한 감정(예를 들어 적대감, 복수심, 공포, 또는 우월감 등)을 바탕으로 전쟁을 지지하며 기꺼이 그 주체로 참가한다. 그리고 군대는 정부가 정한 이성적 목표와 국민의 감정적 고양을 가지고 기회와 확률을 실현한다.

전쟁이 기회와 확률, 특히 ‘운’에 좌우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은 다소 무책임해 보이

1. Kenneth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28~30.

2.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12), pp.57~58.

기까지 한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의도와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 당사자 이외에 자연환경, 동맹국, 국제사회의 대응 등 예측하기 힘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정보의 부재는 전쟁의 '안개'가 되어 공포, 피로와 위협에 더하여 전쟁의 마찰을 구성한다. 이렇게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자리잡는다.

한편 1970년대부터 정보화 혁명으로 기술에 의한 정보획득 능력을 확신하게 된 기술결정론자들은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들이 전쟁의 안개를 거둬내고 마찰을 줄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장담했다.³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이나 2000년대의 대테러 전쟁 초기에 압도적 승리를 쟁취했다. 이에 따라 정보우위에 기반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이 현대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는 군사혁신을 통해 정보화 전쟁을 대비했다.

분명 무인 또는 우주 정찰자산의 비약적 증가는 전쟁의 안개를 어느 정도 걷어주었지만,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정보우위 이외에도 존재한다. 즉, 상대의 의도와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통상 정보전, 기만전, 심리전과 같은 형태로 수행되어 왔지만, 그 성공 여부는 실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역사 속에서 적국의 국민과 지도부의 결심을 흔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성공과 실패가 언제나 교차했다.

특히 현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시도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정보전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국가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일례로 미국은 실제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강령함을 강조하면서 적국 또는 경쟁국들에게 선부른 대응은 재앙을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적대 의지를 꺾어왔다. 한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정보화 시대 이전부터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대중의 인지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지조작을 자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고자 한다.

3. Rodger S. Pitt, "Realities of Space Age & the Realities of Carl von Clausewitz's Theories of 'Fog and Friction'," *Army Space Journal* (Spring, 2008), p.57.

1. 인지의 이해

인지전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인지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인지에 앞서 이해해야 할 개념은 감각과 지각이다. 감각(sensation)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눈, 귀, 코, 피부, 혀의 오감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 지각(perception)이란 감각을 거쳐 주의를 받아 수집된 정보에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지극히 개인적 과정이다. 요컨대 지각은 감각을 의식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인지(cognition)란 감각이나 지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여기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인식과 지식이다. 인식(recognition)이란 과거의 경험에 바탕으로 이를 기억해 내는 마음의 작용으로, 사물 또는 관념 등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식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식이란 인지를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식(knowledge)이란 새로운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인식은 경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인지처리 능력의 차이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식은 표준화된 정보의 축적이므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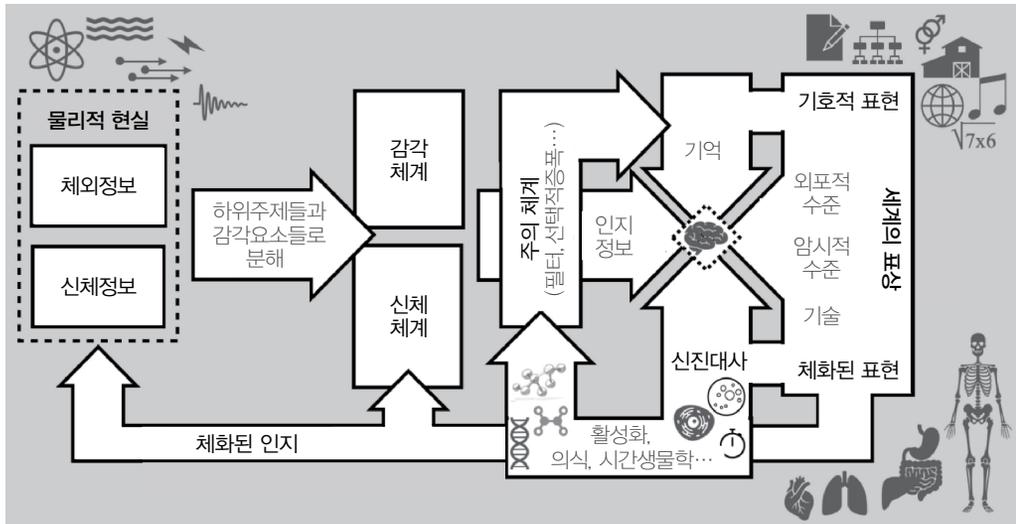
따라서 인지란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의 총체적 수단이 된다. 인지를 통해 인간은 지식과 세계의 표상⁴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은 인지를 통하여 사물, 상황, 상태 등을 분별하여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즉, 모든 인간이 감각으로 느끼거나 비교와 기억을 통해 얻은 정보를 처리하여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인지이다. 인지에 따라 대상에 대한 대응이 적대적이거나 우호적, 또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인지는 인간의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체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정보혁명의 영향이 크다. 컴퓨터의 보편화와 더불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해 인간의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특히 인간의 사고과정 중 인지를 이해하려는 접근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4. 표상(representation)이란 지각이나 기억에 근거하여 의식할 수 있게 된 관념을 뜻하며, 인지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표상은 물리적 표상과 정신적 표상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물리적 표상은 마치 사진을 보고 특정 상황을 떠올리듯이 물리적 매개물을 통하여 대상을 떠올리는 작용이며, 정신적 표상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작용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도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였다. 나아가 인간의 사고과정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림 1] 인간의 인지체계



출처: NATO,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2022), pp.4-2.

인간의 인지능력은 특정한 한계가 있다. 시각은 적외선과 자외선 바깥 영역을 인지하지 못하며, 청각 또한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 한정된다. 게다가 환경의 영향도 커서 야간에는 주간만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며, 신체 상태에 따라 감각과 지각의 활용 능력도 크게 감소한다. 또한 인간의 뇌는 모든 자극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attention)’라는 필터를 통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달리 말하면 주의를 받지 못한 정보는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지식은 크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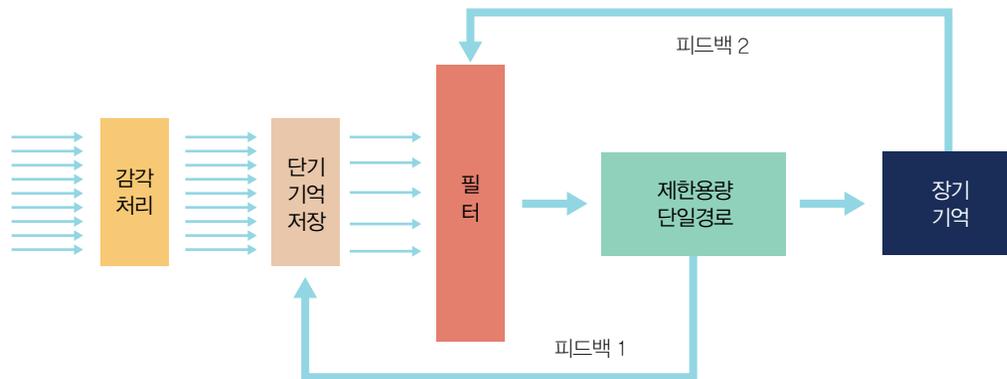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기술이다. 기술은 인간이 감각과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 과거 인지할 수 없었던 것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안경을 통해 시각의 저하를 극복하거나 망원경이나 야간투시경을 통해서 거리나 조명의 한계로 맨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던 것을 보게 된다. 지각에서도 기억력은 처음에는 문자를 통한 필기로 보완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정보로 엄청난 분량을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활용하거나 이제는 AI까지 동원하여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하여 인간은 독립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인지를 디지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더 이상 세계의 복잡성에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의존성은 이제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공유까지 결합하면서 인지의 중심은 급격히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지는 더 이상 뇌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정보 공유까지 확장되었다.⁵

2. 인지전와 전쟁의 관계

이제 군사 분야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인지를 전쟁에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지닌 인지능력의 한계다. 인간의 오감은 인지 대상과 범위에 한계를 가지며, 더 근본적으로는 뇌의 한계 때문에 감각과 지각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 결국 집중, 즉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뇌의 과부하를 막고 선택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정보 선택의 과정을 조작한다면, 상대방의 인지체계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림 2] 제한용량의 인지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선택 과정



출처: NATO,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2022), p.4-4.

5. "손 못 떼는 스마트폰...국민 83% "디지털기기 의존도 심각"", 『연합뉴스』 (2018.9.30).

집중분산의 영역은 바로 인지공격의 대상이 된다. 즉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인지를 돕는 디지털 체계를 공격한다면,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오경보를 반복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경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보체계 관리를 게을리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아예 경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사고도 결국 이러한 경보체계를 무시한 자의적 대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접근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국가의지를 관철하는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불법화되고 냉전 종식으로 미소의 핵과 군비경쟁이 잦아들면서 대규모의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민족이나 종교에 기반한 소규모의 저강도 전쟁(low-intensity war)이 연이어 발생했고, 심지어는 저강도 전쟁의 물리적 파괴조차 피하고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나 회색지대 분쟁(grey zone conflict)이 주된 추세가 되었다.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가의지를 관철하려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II. 인지전이란 무엇인가?

인지는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 판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인지전의 핵심은 바로 적의 인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내는 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지전은 인류의 지정학적·지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전쟁 수행 철학의 산물이다.

1. 인지전의 정의

인지전의 정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지를 전쟁에 활용한다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전쟁 수행을 위한 절차적 개념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현대전 맥락에서 군사와 인지영역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1996년 2개의 논문⁶을 통해 등장했는데, 특히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달(Arden H. Dahl)의 논문에서는 “상대의 결심과정을 인식 면에서 속도나 정확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⁷

그러나 인지전은 이후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여론 및 선거조작에 대응하여 2010년대 말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초기의 정의들 가운데 하나로 하버드 벨퍼 센터는 러시아의 여론 및 선거조작을 설명하면서 인지전을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 전략”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러시아의 인지전을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하이브리드전과 달리 인지전은 상대국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의 유입과 유포를 조작하여 상대국의 정치·사회 체계를 약화하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6. 2개의 논문은 Donald E. Elam의 *Attacking the Infrastructure: Exploring Potential Uses of Offensive Information Warfare*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1996)와 Arden B. Dahl의 *Command Dysfunction: Minding the Cognitive War* (School of Advanced Airpower Studies, Air University, June 1996)이다.

7. Arden B. Dahl, *Command Dysfunction: Minding the Cognitive War* (School of Advanced Airpower Studies, Air University, June 1996), p.37.

8. Oliver Backes & Andrew Swab, *Cognitive warfare: The Russian threat to election integrity in the Baltic state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November 2019), p.8.

한편 이미 대만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삼전(三戰)’ 전략의 맥락에서 인지전을 정의하고 수행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은 인지전을 “인간의 뇌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여 적의 전투 의지를 타격하여 약화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인간의 공포, 불안, 의심 등 심리적 약점을 공략하여 내부 분열과 마찰을 조장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⁹

러시아는 ‘재귀 통제(Reflex Control)’의 개념을 통하여 이미 냉전 시절부터 인지전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재귀 통제란 “적에게 별도로 준비한 정보를 전달하여 적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작전 형태를 가리킨다.¹⁰ 이를 위해서는 적에게 지속적으로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적의 결심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재귀 통제는 소련 시절부터 오랜 교리 중 하나인 ‘위장(Маскировка)’에 기반한 개념으로, 정보기관인 KGB나 GRU가 즐겨 사용해 왔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교리인 ‘게라시모프 독트린(Gerasimov Doctrine)’에 포함되어 현대적으로 구현되었다.

인지전을 군사적 개념으로 가장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NATO로, 특히 2020년대에 들어 다양한 연구 문헌들을 발간하고 있다. 우선 2020년의 정의에 따르면 “대중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이 수행하는 여론의 무기화”¹¹로 설명한다. 2022년 연구에서는 “사이버 수단들을 사용하여 적의 인지를 변화시키고 상대에게 인지 편향과 사고 왜곡을 일으키며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비전통적인 형태의 전쟁”¹²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는 인지전을 “인간 표적의 인지를 바꾸기 위하여 기술을 활용하는 전쟁 수행의 형태”로 정의했다. 아울러 표적(인간)뿐 아니라, 이러한 시도를 대처·최소화·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주체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이 지연되거나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¹³

9. Josh Baughman, “How China Wins the Cognitive Domain,”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023),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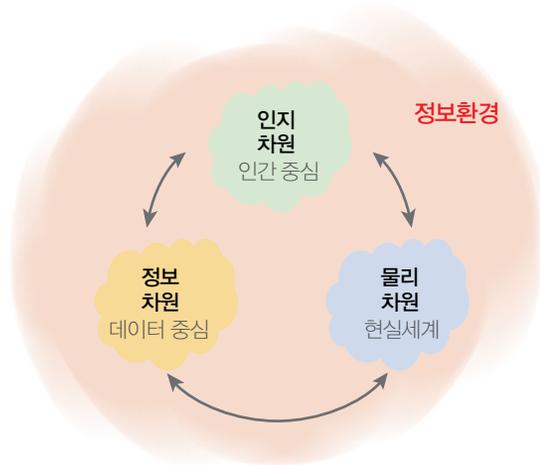
10. Mark Mateski, “Russia, Reflexive Control, and the Subtle Art of Red Teaming”, *Red Team Journal* (October 13, 2016), <http://redteamjournal.com/2016/10/reflexive-control/> (검색 2023.11.12.)

11. Alonso Bernal et al.,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Fall 2020), p.10.

12. Bernard Claverie & François Du Cluzel, “Chapter 2 - Cognitive Warfare: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Cognitics” in the field of warfare”, Edited by B. Claverie et al.,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NATO STO, 2022), p.2-1.

13. *ibid.*, pp.2-1~2-2.

[그림 3] 정보환경의 '전달중심' 모델



출처: JCOIE (2018), p.2.

한편 인지전이라는 개념에 제일 처음 접근했던 미국은 아직 군사교범에 인지전을 교리화 하지는 못했으나, 작전 설계 단계부터 인지영역의 군사적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즉, 정보우위 확보를 위해 정보환경을 구상함에 있어 인지·물리·정보의 3요소를 전달중심 모델 (transmission-centric model)로 설명하고, 정신(인지차원)과 신체(물리차원)를, 그리고 사고(정보차원)와 정신(인지차원)을 분리하여 흐름을 조망함으로써 인지영역의 활용을 논의했다.¹⁴

국내에서도 인지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국방부는 이미 ‘국방비전 2050’을 통하여 적국 지도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심리영역도 전장 영역에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다.¹⁵ 특히 육군은 인지전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여 “정보와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정을 공격함으로써 표적이 되는 개인·집단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지전이 미래전쟁의 주된 수행 양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¹⁶

14.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oncept for Operating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JCOIE)* (25 July 2018), pp.2~3.

15. 국방부, 『국방비전 2050』(서울: 국방부, 2021), p.54.

16. 육군 교육사,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2022), p.41.

2. 인지전의 특징

인지전은 인간을 대상으로 정보를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전이나 심리전 같은 개념과 별반 차이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우선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란 “적이거나 잠재적 적대세력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감쇄나 타락 또는 강탈하기 위해 정보관련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인지전은 정보작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대에게 전달되어 지식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는 작전 양상을 인지전으로 볼 수 있다.¹⁸

한편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해외의 대중 표적을 상대로 그들의 감정, 동기, 객관적 추론, 최종적으로는 해외 정부, 집단,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지표들을 전달하는 작전”으로 정의된다.¹⁹ 심리전은 정보전 수행의 일환이며 주로 인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적의 능력을 감소시키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인지전은 인간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주는 데 집중하여 인지장애를 일으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리전이 인간의 감정에 집중한다면, 인지전은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전에서는 표적 집단이 자신의 현실과 정신적 자기확신, 그리고 집단이나 사회, 심지어는 국가까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접근방법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방법을 공격하고 활용하며 감쇄시키거나 심지어는 파괴한다. 요컨대 현실의 표상을 조작하여 적의 사회가 믿고 좋아하며 신뢰하는 것을 공략하는 것이다.²⁰

인지전은 인간의 인지라는 독특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무엇보다 물리적 파괴가 아닌 비물리성이야말로 인지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적의 인지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특정 센서·무기체계·유인부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17. Joint Publication (JP) 3-0, Joint Campaigns and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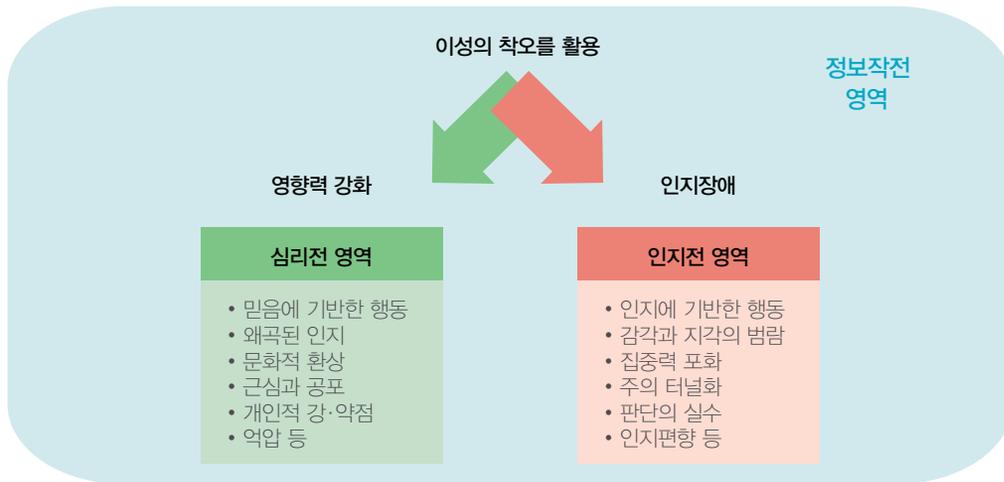
18. Emily Bienvenue et al., “Cognitive Warfare”, *The Cove* (September 9, 2019).

19. Department of Army, *FM 3-05.301 Psychological Operations: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December 2003), p.1-1.

20. Bernard Claverie & François Du Cluzel, *op. cit.*, p.2-3.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표적으로 하는 대상의 인지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감쇄시키는 데 있다.

[그림 4] 정보작전상의 심리전과 인지전 비교



출처: NATO,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2022), p.2-4.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도 인지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전쟁의 수준과 주체에 따라 전쟁을 인지하는 수단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전쟁지도부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가 보내는 영상·계측정보, 또는 적진에 잠입한 첩보원을 통한 인간정보 등 고가치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국내외 언론사나 SNS 등의 수단을 통해 전쟁상황과 맥락을 인지한다. 현대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주체가 인지를 위해 기술 기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에서 표적이 된 대중이 정보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교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인지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인지전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군·정부·국민의 구분 없이 모두 활용해야만 하므로 궁극적인 민군 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인지라는 인간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등의 지혜가 요구되며, 사회학, 역사학 등 국가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군과 정부만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며 국가적 지성을 모두 동원하는 지식 총력전으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전의 공격 양상은 단발적·단기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지전은 공격자가 정보나 지표를 제공하여 상대의 결심 과정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이뤄지지 않고 상당한 사전 준비와 스스로 변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전은 반드시 전시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하는 시기에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수행해야만 한다.

3. 인지전의 다양한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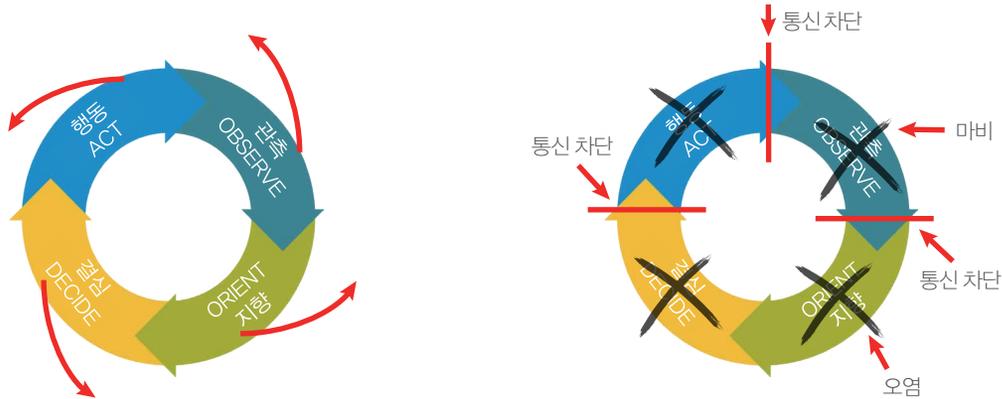
인지전의 궁극적 목표는 잘못된 인지를 유도해 적의 결심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다. 단순히 인지적 착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이 실제 결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전쟁이나 분쟁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Command & Control, C2)에 작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지 착오, 인지 왜곡, 인지 분산 등 인지 문제를 일으켜 지휘통제를 흔들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휘통제와 인지 사이의 관계는 OODA 루프²¹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ODA는 조종사의 교전과정을 정리한 것이지만, 이는 지상군 보병분대 간의 교전에서 전쟁 전체의 지휘통제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아군뿐만이 아니라 적군도 모두 OODA 루프를 활용한다. 결국 OODA 루프를 상대보다 먼저 완성하는 쪽이 승리를 차지한다. OODA 루프에서 인지를 활용하여 승리하는 길은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여 지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적의 인지와 지향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가 OODA 루프의 공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째 인지전은 적 OODA 루프의 진행을 방해하여 루프 완성속도를 느리게 만들거나, 둘째 다양한 방해수단을 활용하여 OODA 루프 자체를 단절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²²

21. OODA는 관측(Observe)-지향(Orient)-결심(Decide)-행동(Act)의 준말로, OODA 루프(OODA loop)란 전투기 조종사가 적을 식별하고 의사결정 후 교전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즉 공중전에서 조종사는 적의 행동을 먼저 보고(관측) 그 의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제시한 다음(지향) 최적의 해답을 선택하여(결심) 적과 교전한다(행동). 이에 따라 공중전에서는 나와 적기의 OODA 루프가 서로 대결을 펼치며, 어느 한쪽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OODA 루프는 무한히 반복된다.

22. Arden B. Dahl, *op. cit.*, pp.34~38.

[그림 5] 인지공격의 2가지 방법: 지연(좌)과 차단(우)



출처: Arden Dahl, *Command Dysfunction: Minding Cognitive War* (1996), p.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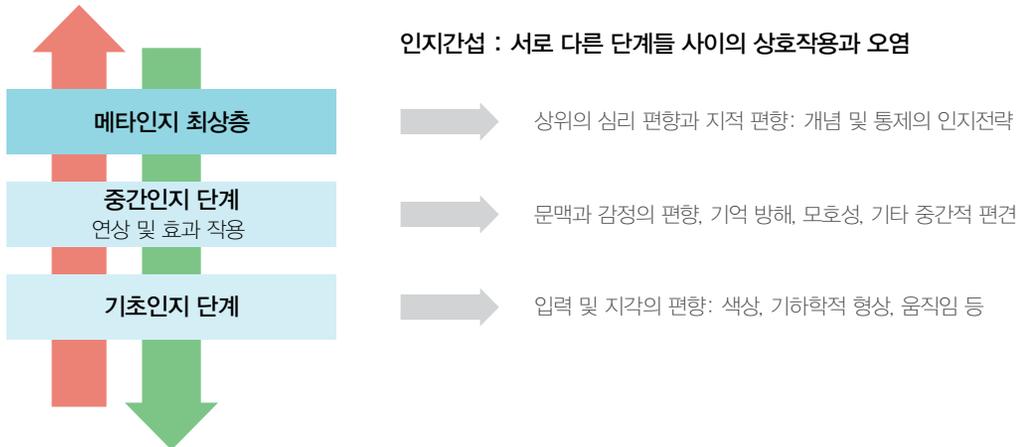
한편 인지 자체에 대한 공격도 그 계층이 다양하다. 인지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 상위인지)부터 연상과 효과작용을 통제하는 중간인지 단계(intermediate cognitive level),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초인지 단계(basic cognitive level)까지 모두 교전의 대상이 된다. 메타인지에서는 주로 단어나 상징을 활용하는 의미론적인 전략이 채용된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활동 자체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한다.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친숙한 지식과 실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차이이다.²³ 따라서 메타인지를 공략하면 상대의 심리와 지식을 뒤흔들 수 있지만, 만약 적국의 메타인지가 시대적 이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메타인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표적집단의 확증편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위의 인지단계에 이르면 중간에서 효과와 기억, 기초단계에서 추출과 지각 등의 인지작용이 벌어진다. 이러한 단계 간의 긴밀한 관계로 환경과 상황인식에 관한 전 세계적 지식이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각 단계 내부의 갈등이나 단계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지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인지전이다.

23.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서울: 북멘토, 2022), pp.181~184.

[그림 6] 단계에 의한 인지체계의 구성



출처: NATO,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2022), p.4-8.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적 갈등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지각이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듯 인지와 편향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떤 이는 감각정보를 중시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감정이나 기억을 더욱 중시한다. 주의의 정도도 달라서 어떤 이는 세부를 명확히 기억하지만 어떤 이는 맥락만을 본다. 즉, 인지성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를 통한 학습이다. 이러한 언어를 통한 학습이 이론화 체계화되면서 메타인지를 형성한다. 문제는 메타인지 모델과 개인적 지식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공략의 대상이 된다. 적절한 귀추(歸推)적 추론이나 정신병리학적 장애가 더해지면 학습은 더욱 크게 실패하게 된다.²⁴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공략지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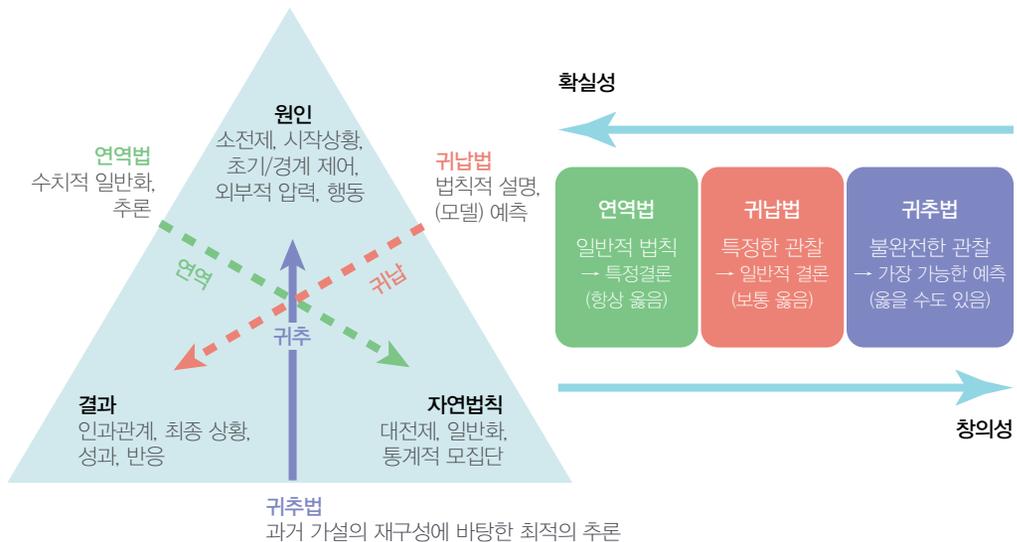
인간이 통상적으로 지니는 귀인 성향(attribitional tendency)도 공략의 대상이 된다. 귀인(歸因, attribution)이란 관찰을 통해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과 추론과정을 가리킨다. 인간은 누구나 귀인 성향, 즉 주변 사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원인을 규명하려는 경향을 지니며, 특히 결심권자일수록 그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24. Bernard Claverie, "Chapter 4 — What is cognition? And how to make it one of the ways of the war", Edited by B. Claverie et al., *op. cit.*, pp.4-8~4-9.

많은 이들이 귀인의 과정에서 귀납법이나 엄격한 과학적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 역사와 경험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귀인 편향(attribution bias)²⁵이 발생하며, 바로 이 지점이 인지전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의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무의식적이면서도 자동적으로 귀인을 수행한다. 따라서 귀인에 대하여 원하는 설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귀인 편향을 발생시켜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빠른 결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바쁜 사람일수록 귀인 편향에 쉽게 빠지므로, 이는 인지전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인지전의 시발점은 바로 인지적 오류이다. 인간은 추론을 위해서 귀납법, 연역법, 귀추법의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며, 인지적 오류는 대체로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귀추법(歸推法, Abduction)으로, 이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적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 경험이나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림 7] 연역법-귀납법-귀추법 사이의 관계성



25. 귀인편향(歸因偏向)이란 원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편향으로, 합리성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다가 발생하는 편향된 판단이다. 귀인편향의 양상으로는 기본귀인오류, 행위자-관찰자 편향, 특출성 효과, 자기기여귀인, 통제력 착각 등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귀인오류(fundermental attribution error)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상황의 영향력은 무시하고 개인적 특성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한다.

귀추법은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형식논리의 결과를 따르는 연역법과는 달리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귀납법이나 연역법에도 인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급박한 전쟁 또는 분쟁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귀추법이 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이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인지 오류가 국민적 특성인 경우에는 더욱더 활용하기 쉬워지며, 방어자의 입장에서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Ⅲ. 현대전의 인지전

인지전은 역사 속에서 줄곧 존재해 왔다. 일례로 기원전 525년 펠루시움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이집트군을 상대로 전투하면서 고양이, 개, 양, 따오기 등의 동물을 앞세워 싸웠다. 동물을 신성시하는 이집트인들은 전투에서조차 동물들이 다칠까 두려워 제대로 공격할 수 없었고 궤멸당했다고 한다.²⁶ 전투의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의 패배를 끌어낸 것으로 인지전의 전술적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공포와 악명을 내세워 기선을 제압하고 ‘선승구전(先勝求戰)’을 추구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 공포로 유럽을 뒤흔들었던 몽골의 침략, 승전을 거듭하며 적에게 좌절을 안겨줬던 나폴레옹의 진군, 1차 대전의 여파로 주저하던 영국과 프랑스를 압도하고 서유럽을 장악했던 2차 대전 초기의 나치 독일 등 사례는 무한하다.

그러나 현대의 인지전은 공포와 위명을 넘어서 적국의 국가적 이성을 마비시켜 의지를 굴복시키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인지전에 관한 노력을 살펴보겠다.

1. 미국의 인지전

미국은 정보화 시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인지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소프트파워를 내세워 세계 각국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극도로 발달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이끌면서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은 적대세력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91년 소련이 점차 무너져가는 가운데 미국이 걸프전에서 손쉽게 승리함으로써 권력의 이동은 확인되었다. 이후 미국은 전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활용하되, 우선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외교나 이념, 심지어는 문화까지 동원하여 상대국을 먼저 ‘설득’

26. Katharine M. Rogers, *The Cat and the Human Imagination: Feline Images from Bast to Garfiel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14.

하였다.²⁷ 또한 군사작전을 실시하더라도 가능한 최대한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작전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를 도모해 왔다.

인지적 우위를 이미 점하고 있는 미국에게 인지전을 별도의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섬 세계관과 무역전쟁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급격히 하락하였다.²⁸ 여기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구권 중심으로 높아진 인지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하여 미국도 점차 준비태세를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패권경쟁 시기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으로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을 제시하면서, 인지영역에 대한 작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합동 정보환경작전개념서』를 통하여 정보환경에 인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으며,²⁹ 『미육군 2028년 다영역작전개념서』를 통하여 MDO의 각 단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영역의 공략을 논의하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한 축으로 하고, 그 반대 축에서는 적국에 대한 공략으로서의 인지전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지전은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2월에 침공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인지전을 방해한 바 있다.

2. 러시아의 인지전

인지전의 측면에서 가장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온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소련과 중국은 애초에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건국됨에 따라 개국 초부터 국민들의 인지를 조작하며 국가를 운영해 왔다. 사적 소유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유화라는 공산주의의 가치는 애초에 인간의 소유 욕망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국가 차원의 인지

27. 김상배,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17.

28. Jonathan McClory et al., *The Soft Power 30: A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2019*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 Portland, 2019), pp.9~10.

29. US Joint Chiefs of Staff, *op. cit.*, pp.3~5.

30. US Army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6 December 2018), pp.9,20,25.

조작을 통하여 군중심리와 우민화를 통하여 국민의식을 체제에 끼워 맞춰왔다. 비록 소련은 붕괴하고 러시아연방으로 바뀌었지만, 러시아도 푸틴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전제적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련의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소련 시절부터 인지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 다양한 인지전 수단을 개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귀통제(再歸統制, Reflexive Control) 개념으로 1965년 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블라디미르 르페브르(Vladimir A. Lefevr)에 의해 고안되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분쟁은 양측의 정보·관리 시스템 간의 충돌이며, 분쟁 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합리성이 아니라 ‘분쟁과 그 다양한 국면에 대한 이미지’로 보았다. 따라서 상대의 의식에 침투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미지를 왜곡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면 충분히 의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재귀통제는 냉전 시절 미국과의 대결은 물론 위성국가들의 통제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되면서 소련의 정보전·심리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주변 공화국들의 통제에 바뀐 러시아 연방도 재귀통제를 계속 활용했다. 소련 시절 재귀통제의 적극적인 채용에 앞장섰던 이오노프(M. D. Ionov) 소장은 1995년 한 논문을 통해 재귀통제로 적국의 지휘통제를 무너뜨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방책들을 제시했다. 1997년 세르게이 코모프(Sergei A. Komov) 대령은 이를 발전시켜 11가지 기법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혼란(disruption)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다.³²

31. 재귀(reflection)란 개인이나 사회구성원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물리세계에 대한 심상, 즉 생각과 이미지이지만, 이러한 심상이 다양한 정보에 의해 변화 또는 왜곡될 수 있으므로 결국 재귀란 물리세계를 자신의 내면에서 재구성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르페브르는 바라보았다. 더욱이 이러한 재귀가 합리성에 기반하여 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간과 사회전체 의식 수준에서 이미지를 변형시킨다면 적의 내면을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 통제”, 『서양사연구』 제 66집 (2022), pp.149~153.

32. Jelmar de Kievit, “Reflexive Control in the Russo-Ukraine war: How Russia applied Soviet military theory to try and win a quick victory in 2022”, *Militaire Spectator* Vol.192 No.9, pp.394~395; Keir Giles et al., *Russian Reflexive Control*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2018).

[표 1] 재귀통제의 기법들과 효과

항목	내용
기만 (각색) Deception	전투작전의 준비 단계에서 적이 전력을 위협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강요함.
억제 (겁박) Deterrence	극복할 수 없는 우위에 있다는 지각을 창출함.
주의분산 Distraction	전투 작전의 준비 기간 동안 적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중의 하나를 실제 또는 가상으로 위협하여, 적으로 하여금 특정 축에서 작전하려는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반성하도록 함.
분단 (해체) Division	적에게 그들이 소속된 동맹·연합과 반대로 움직여야만 한다고 확신시킴.
소진 Exhaustion	적에게 의미 없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강요하여, 자원이 소진된 상태로 전투에 참여하도록 함.
과부하 Overload	시시때때로 적에게 상반된 정보들을 대량으로 제공하여 과부하로 의사결정을 마비시킴.
유화 (진정) Pacification	자신의 공세 준비를 사전에 준비된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적이 믿도록 만들어 주의를 경감시킴.
마비 Paralysis	적에게 자신의 핵심 이익이나 약점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
압박 Pressure	적국 정부가 대중에게 경멸받을 만한 정보를 제공함.
도발 Provocation	적에게 먼저 공격을 취하도록 하여, 유리한 상황을 이용함.
제안 Suggestion	적이 법적·도덕적 혹은 이념적이나 기타 취약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부적 분열을 조장함.
혼란 Disruption	분쟁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적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파괴하거나 방해하여 사전에 의도된 행동을 하도록 함.

출처: de Kievit, "Reflexive Control in the Russo-Ukraine war", p.394.

러시아는 특히 조지아 전쟁(2008) 이후 재귀통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N. Saakashvili) 조지아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귀통제 기법인 ‘압박’과 ‘제안’을 병행하여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행동을 유도했다. 이러한 재

귀통제 공격은 단독이 아니라 군사작전과 결합하여 수행되었다. 러시아군은 ‘유화’ 기법을 활용하여 ‘캅카스 2008’ 기동훈련을 빌미로 침공 병력을 인근에 대기시키고,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무장단체를 남오세티야 지역에 침투시켰다. 이어 민병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개입의 명분을 만들었다.³³

러시아는 재귀통제를 크림합병(2014)과 시리아 내전 개입(2015)에서도 활용하면서 그 기법을 더욱 가다듬었으며, 실제 러시아 군사교리에 재귀통제가 결합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가 ‘신세대전’이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전에서는 군사력 이외에도 외교·정보·경제·문화·사이버는 물론 심지어 범죄까지 국가가 가진 모든 요소가 투입된다. 이 교리의 창시자인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총참모장은 신세대전에서 비군사수단과 군사수단의 투입 비율이 4 대 1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³⁴ 여기의 비군사수단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재귀통제 기법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인지전은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선 전쟁 개시 전부터 우크라이나 대중에 대하여 제안·분단·억제·압박 등의 재귀통제 기법을 활용했다. 우선 러시아는 ‘제안’ 기법을 활용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이 나치주의자이며 소수민족인 러시아인을 학살할 것이라는 허위의 내러티브를 유포했다.³⁵

한편 푸틴은 크렘린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 하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분단’을 시도했다. 한편 침공 직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두려워하고 최악을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억제’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침공의 바로 전주에 돈바스의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인 ‘학살 영상’을 유포

33. 이정하, 전게서, pp.160~164.

34. Dmitry Adamsky, *Cross-Domain Coercion: The Current Russian Art of Strategy*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November 2015), p.23.

35. 이는 러시아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만드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였지만, 러시아군의 초기 침공에서 러시아인이 많은 남부 우크라이나지역에서도 정부에 반대하고 러시아를 환영하는 인파는 거의 없어 제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Ukraine War: How Russia Took the South - and Then Got Stuck’, *BBC News* (February 27, 2023),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4718740>.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압박’ 기법을 활용했다.³⁶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개전 이전의 인지전으로는 우선 ‘유화’를 들 수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21년 4월과 11월에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병력 배치를 기만하고자 했다. 또한 러시아는 ‘주의분산’ 기법을 활용하여, 돈바스 지역을 언급한 푸틴의 에세이를 무려 6차례나 언급하면서 키이우에 대한 공격 의도를 감추고자 했다.³⁷

개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서 ‘혼란’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지도 능력을 방해하고자 했다. 우선 러시아 해커들은 개전과 동시에 미국 회사 비아셋(Viasat) 소유의 위성통신을 공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망을 차단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인지능력을 차단했다.³⁸ 또한 해커들은 악성코드인 ‘허메틱와이퍼(HermeticWiper)’를 유포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 이외에도 러시아는 ‘주의분산’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레이더에 대한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여,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전선 초계임무를 강요했다.³⁹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인지전 시도도 지속했다. 먼저 ‘분단’을 노리며, 푸틴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쿠데타로 젤렌스키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해킹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초급 장교들에게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다.⁴⁰ 또한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하면 무장해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뉴스를 퍼트림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분단’ 공작에 힘을 보탰다.

36. Bellingcat Investigation Team, ‘Documenting and Debunking Dubious Footage from Ukraine’s Frontlines’, *Bellingcat* (February 23, 2022).

37. Alexander Marrow, ‘In Russia-Ukraine Faceoff, Both Sides Stage Combat Drills’, *Reuters* (November 25, 2021); ‘Russia to Pull Troops Back from near Ukraine’, *BBC News* (April 22, 2021).

38. Matt Burgess, ‘Viasat Satellite Hack Spills Beyond Russia-Ukraine War’, *WIRED* (March 23, 2022).

39. Justin Bronk, Nick Reynold, and Jack Watling, ‘The Russian Air War and Ukrainian Requirements for Air Defence’, *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November 7, 2022), p.7.

40. Julie Coleman, ‘Russian Operatives Sent 5,000 Text Messages in a Failed Attempt to Incite Ukrainians to Attack Their Own Capitol’, *Business Insider* (April 1, 2022); Mykhaylo Zabrodskyy et al., ‘Preliminary Lessons in Conventional Warfighting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February– July 2022’,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November 30, 2022), p.25.

[그림 8] 러시아가 인지전을 위해 만든 젤렌스키의 가짜 영상과 원본 비교



출처: verifythis.com.

한편 러시아 언론들은 2월 말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억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고자 했다. 이는 곧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전체에 확산되면서 일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 언론 외에도 가짜 뉴스를 활용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항복하는 것처럼 조작된 딥페이크(deepfake)⁴¹ 영상으로, 이는 SNS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다.⁴²

한편 러시아는 전쟁의 도중 ‘도발’의 기법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곤란에 빠트렸다. 3월에 러시아군은 마리우폴(Mariupol)을 점령하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파괴해 나갔다. 이는 마리우폴을 넘기라는 러시아군의 요구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부한 이후 일어난 일로,

41.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트렌드리포트] 딥페이크 기술의 빛과 그림자”, 『미디어 이슈 & 트렌드』 Vol.26 (2019.12.), p.30.

42.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 and Roman Osadchuk, “Russian War Report: Hacked News Program and Deepfake Video Spread False Zelenskyy Claims”, *Atlantic Council* (March 16, 2022).

파괴와 살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으로 넘겨 정치적 부담을 안기기 위한 책략이었다. 결국 이후 6월에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Severodonetsk)시를 포위하고 똑같이 항복을 요구하자, 우크라이나군은 철수했다.

이렇듯 러시아는 재귀통제의 기법을 전쟁 전반에 적용하면서 인지전 수행개념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러시아의 인지전 시도는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의 당사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진다는 점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EU 국가들에서 반EU 정서의 정당들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⁴³ 평시부터 꾸준히 인지전을 수행함으로써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낮추려 하고 있다.

3. 중국의 인지전

인지전에서 독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전이승(不戰而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간을 직접 공략하는 전략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대까지는 현대화된 정보화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7년 이후 인공지능과 인지영역 전투를 구체화한 ‘지능화전’ 개념을 제시하며, 지능화영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⁴⁴

공산주의 국가이자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중국은 국제질서나 도덕에 제한받지 않고, ‘중국몽(中國夢)’이라는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분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상을 국제사회가 저항 없이 받아들일 리 없으므로 인지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중국은 인간의 욕망이나 기본권마저 부정하며 체제를 유지해 왔고, 이제는 그러한 방식을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세계상과 전쟁관을 반영하는 것이 1999년 등장한 ‘초한전(超限戰)’ 개념이다.⁴⁵ 초한전이란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전쟁·비전쟁·군사·비군사의 한계 없이 모든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여 승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43. 도종윤, 『러시아의 유럽 선거 개입논란: 팽창주의 전략의 새로운 버전?』(제주평화연구원, 2017.5.4.)

44. 차정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연구: 육군의 군사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1집 1호 (2021), p.82.

이에 따라 초한전에서는 기존의 전쟁 이외에도, 무역전, 금융전, 新테러전, 생태전, 심리전, 매체전, 밀수전, 마약전, 네트워크전, 기술전, 기만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문화전, 국제법전 등 새로운 작전 형태들을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⁶

중국은 이러한 작전 양상 가운데 특히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3전(三戰)을 중심으로 인지전 수행전략을 구체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공작조례에 3전을 공식화하면서 국제적 갈등이 발생하면 3전을 중심으로 교전하도록 하여,⁴⁷ 인지전 수행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간을 공략하는 ‘지능화전’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인지전은 중국군에게 핵심적인 교전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인지를 전장영역으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래 전장의 핵심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실 이는 미국의 정보환경 ‘전달중심’ 모델을 전쟁영역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지만, 인지영역을 ‘인간의 의식과 지능의 영역’으로 보고 인간의 ‘뇌’를 새로운 교전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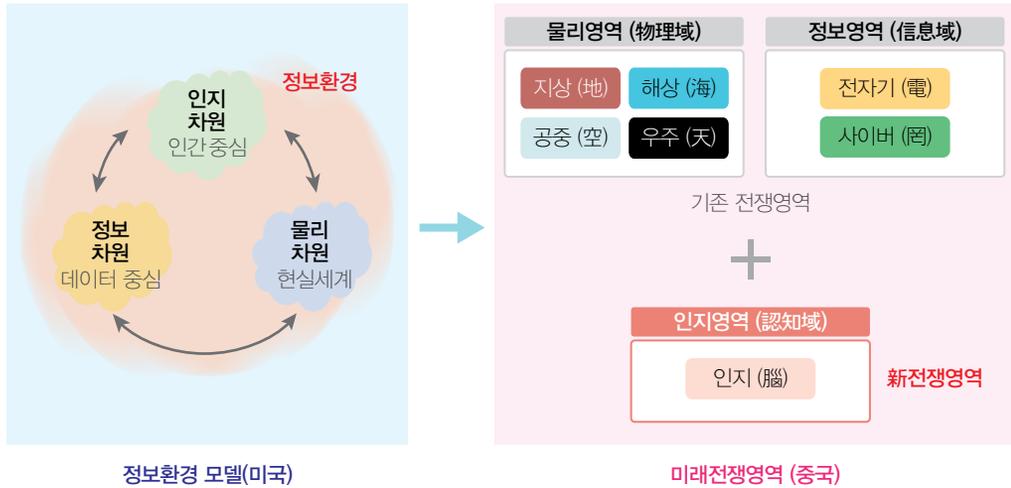
특히 중국의 지능화 작전개념은 물리적 충돌에서의 우위보다는 무형적 대결 승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의 전략가들은 지능화 작전의 핵심개념을 전장정보와 상황인식에서 적보다 결정적 우위를 달성하여 인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중국은 인지우세권(制腦權), 즉 인지영역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적의 인지영역을 공격하여 적의 전투능력과 의지를 무력화함으로써 교전 없이도 적을 제압하는 ‘부전이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⁴⁸

45. 초한전 개념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극복하기 힘든 대상으로 바라봤기에, 초한전이라는 극단적인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46. 차오량·왕상수이, 이정근 역,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 (서울: 교우미디어, 2021), pp.12~13, 45~53.

47. 중국의 3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전은 상대 국민의 심리에 내재된 정보·믿음·사교에 자극을 주어 상대 지도자의 정책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유감시키는 것, (2) 여론전은 모든 미디어수단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내외의 공공담론과 인식이 중국의 이익에 우호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3) 법률전은 국내외의 법·관례·관습을 의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중국은 법을 잘 준수한다에 반하여 상대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만들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입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권태영·김푸름, “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77호 (2019), pp.263~267.

[그림 9] 미국의 정보환경 모델(좌)과 중국의 미래 전쟁영역 모델(우)



이에 따라 중국은 적의 인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의사결정 및 군사작전을 신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즉, 인지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알고리즘 성능의 상대적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적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적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오류나 편향의 발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⁴⁹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추진하며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⁵⁰ 이를 통해 미래전의 주된 작전양상인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 인지전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48. 이에 따라 지능화 작전도 ‘인지적 대립의 속도와 질에 기초하여 적의 인지를 손상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전장에 대한 적 인식과 이해를 공격하고 나아가 ‘인지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정의된다; 沈寿林·张国宁, “认识智能化作战”, 『国防部网 军媒视点』(2018.3.1.), <http://www.mod.gov.cn/gfbw/jmsd/4805633.html> (검색일: 2023.11.30.); 나호영·최근대, “인공지능에 기반한 중국의 군사혁신: 지능화군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6집 제3권 (2020.10), pp.99, 105~106.

49. 나호영·최근대, 전게서, p.106; 李明海, “是什么在推动战争向智能化演变”, 『解放军报』(2018.11.6.), http://www.81.cn/fjbjmap/content/2018-11/06/content_219950.htm (검색일: 2023.12.2.).

50. 国务院,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国发』 35号 (2017.7.20.),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검색일: 2023.11.18.).

이러한 미래전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현재 중국은 이미 치열하게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인지전 노력이 집중되는 대상은 대만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내세워,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이며 통일이 중국 인민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⁵¹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국제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며, 이러한 내러티브를 국제사회에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3전, 즉 인지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원래 3전 개념은 대만에 대한 공세에서 시작되었다. 3전은 심리전·여론전·법률전의 연계 속에서 수행된다. 일례로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지역이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는 내러티브와 그에 근거하는 기록을 만들어낸 뒤, 이를 자국 영토화의 근거로 삼는 법률을 제정해 국내외에 전파하면서 내러티브를 확립한다. 이후 이러한 내러티브에 대항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심리전과 여론전을 동원해 이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상대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내러티브를 지켜낸다.⁵²

중국은 대만에 대한 인지전을 위하여 군사적 협박 메시지의 전달, 양자관계를 통한 영향력 증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팜(Content Farm)’⁵³의 운용 등 방법을 활용한다.⁵⁴ 2022년 8월 펠로시(Nanci Pelosi)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 중국의 인지전 공격은 극에 달하였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의 국제수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일주일간 무려 272건의 가짜 뉴스를 무차별로 살포하기도 했다.⁵⁵

중국의 인지전 대상은 대만에 그치지 않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해권을 두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전환하여 군사·준군사·비군사영역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국들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3전이 통상

5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

52. 권태영·김푸름, 전계서, p.267.

53. 콘텐츠 팜(Content Farm)이란 수많은 자유기고자나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SNS 포스트, 밈, 저화질 영상, 온라인 기사 등)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키워드와 알고리즘을 충족하여 검색결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활동한다.

54. Tzu-Chieh Hung & Tzu-Wei Hung,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A Frontline Perspective of Taiwan’s Anti-Disinformation War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7 No.4, (2020), p.4.

55. “China begins ‘illegitimate, irresponsible’ live-fire military drills - Taiwan”, *Reuters* (4 August 2022); “대만군, 중국공산당 1일부터 272건의 가짜뉴스 퍼뜨리려 해”, 『연합뉴스』(2022.8.8.).

적으로 동원되어 상대의 ‘마음’, 즉 인지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⁵⁶ 특히 중국이 2017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국을 압박한 것도 이러한 회색지대 분쟁과 인지전의 일환이다.⁵⁷

이렇듯 중국은 인지전을 국익 수호를 위한 전쟁·분쟁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실제 정교하고도 치열한 인지전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지전은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적 연대재결성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과 상대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수행될 것이며, 장차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스라엘의 인지전

이스라엘도 역시 인지전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적대 세력의 공격과 그 대응 상황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인지전을 수행한다. 예컨대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정밀 타격 영상을 작전과 동시에 SNS에 공유함으로써 상대를 전장 공포에 빠뜨려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국군의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해 왔다.⁵⁸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인지전을 적의 교전 의지를 파괴하는 인지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물리영역의 무력화까지 연결하여, 군사작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군은 먼저 가자지구의 진입을 SNS로 알려 하마스를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유인한 후에 이를 공중타격으로 파괴하였다.⁵⁹ 이로서 이스라엘은 까다로운 지하터널 전투를 피하고 적을 비교적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유사한 작전 양상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반복되었다.

56. 마월·구본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3권 제2호 (2023), pp.34~36.

57.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겨울호 (2018), pp.54~59.

58. 조상근,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SNS를 활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 『Naver 지식사전』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65> (검색일: 2023.12.11.)

59. 조상근 외,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인지전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6 (2022.11.), pp.539~540.

한편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인지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얽은 지리적 중심으로 인해 국가가 일거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선제공격과 보복작전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줄곧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상 최대의 예방전쟁인 3차 중동전쟁(1967)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점령지 소탕 작전이나 하마스·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까지 거의 모든 군사작전이 국제 여론의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후견국가인 미국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어왔다. 결국 미국의 지원 없이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교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국제 공용어인 영어 능통한 대변인을 통해 자국군의 작전 의도와 작전 양상을 소개하는 한편, 작전 현장과 정밀타격 작전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 없었음을 입증해 왔다.⁶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격 지역과 시신들까지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인지전에 나섰다. 또한 개전 이후인 2023년 10월 17일 가자 지구 내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Al-Ahli Arab Hospital)을 향한 오폭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마스의 오폭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추후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오폭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의 까삼 로켓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⁶¹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소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시했던 녹취가 디지털로 조작된 것이라고 음향분석 NGO인 이어샷(Earshot)이 주장했으며, BBC와 CNN 등의 언론도 그 진위를 의문시하고 있다.⁶²

60. "Join IDF International Spokesperson LTC Jonathan Conricus LIVE at an Israeli home struck by a rocket launched from Gaza which killed an Israeli civilian", *idfonline @facebook* (2021.5.11.), <https://www.facebook.com/idfonline/videos/209110187688681/> (검색일: 2023.11.11.).

61. Human Rights Watch, "Gaza: Findings on October 17 al-Ahli Hospital Explosion, Evidence Points to Misfired Rocket but Full Investigation Needed", *Latest News* (November 26, 2023), <https://www.hrw.org/news/2023/11/26/gaza-findings-october-17-al-ahli-hospital-explosion> (검색일: 2023.12.8.).

[그림 10] 하마스의 오폭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지전 대응



하마스:
이스라엘의 병원 오폭 주장



이스라엘:
하마스의 오폭 근거 제시

1. 하마스 감청 녹취자료 SNS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gqgpd0xkK4M>

2. 포격 분석영상 SNS 공개

<https://twitter.com/IDF/status/1714513625598021868>

해당 녹취가 이런 의혹처럼 조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국에 대한 전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녹취 자료를 제시(또는 위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지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높은 대비 태세를 보여준다.

62. “CNN Investigates: Forensic analysis of images and videos suggests rocket caused Gaza hospital blast, not Israeli airstrike”, *CNN International* (November 2, 2023); “Gaza hospital: What video, pictures and other evidence tell us about Al-Ahli hospital blast”, *BBC News* (October 19, 2023) ; Earshot, ngo, “http://Earshot.ngo performed a Doppler Effect analysis from two videos from the missile attack on the Al-Ahli hospital”, X (previously twitter) (October 20, 2023), https://twitter.com/earshot_ngo/status/1715381907230232929 (검색일: 2023.12.9.).

IV. 인지전 수행 방안

인지전이 미래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임을 앞서 살펴 봤다.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결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전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쟁 수행의 형태로 규정하고 수행 절차를 공식화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하에서는 인지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1. 인지전의 목적과 대상

전쟁의 목표(end state)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며, 억제가 실패하여 일단 개전하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전쟁이 결국 국가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클라우제비츠 전쟁관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인지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국 의지를 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전을 적국의 인지체계를 뒤흔들어 적국의 의지를 굴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인지전은 공격 대상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어 공격자에게 전략적 이점을 주는 것을 목적(objective)으로 한다.⁶³

요컨대 인지전의 목적은 적을 나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전쟁의 의지를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 달성된 후 인지전의 효과(effect)로 상대국은 국민 간 갈등이 증폭하여 사회 단합력이나 복원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결과적으로 항전 또는 저항 의지는 낮아지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⁶⁴ 인지전이 궁극에 다다르면 상대국 국민들은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상대국은 실패국가로까지 전락하게 된다.⁶⁵ 이에 반하여 아군은 더욱 확신을 갖고 전쟁 수행 의지를 고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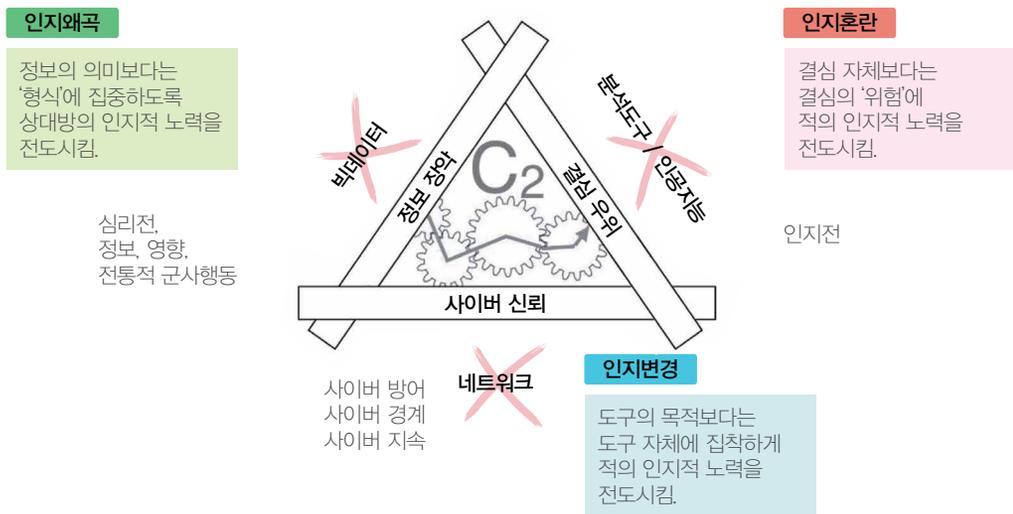
63. Robert Reczkowski & Andrzej Lis, "Cognitive Warfare: what is our actual knowledge and how to build state resilience?", *Bezpieczenstwo Security* No. 3 (2022), p. 55).

64. Andrey Volkov, "Cognitive Wars: Features of the Geopolitical Conflict in 21st Century," *European Proceedings of Educational Sciences* Vol.1 (2020), p.5.

65. Kimberly Orinx & Tanguy Struye de Swielande, "Cognitive warfare and the vulnerabilities of democracies," *CECRI* No. 79 (2021), p.1.

그렇다면 인지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할까?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인지전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란 아군과 적군을 포함한 전쟁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자국과 적국, 그리고 관계국과 상관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으면, 인지전의 범위는 너무도 광범위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게 된다.

[그림 11] 인지전 대상으로서의 전쟁지도부



인지전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양식까지 모두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⁶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가장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쟁의 지휘통제를 담당하는 전쟁 지도부, 즉 국가의 정부 및 군사 지도부 구성원들이다. 러시아의 재귀통제가 인지와 사고를 조작하는 데 있어 국가지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가 지극히 발달한 현대전에서 국가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제한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조작으로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66.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Imperial College London,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NATO Review* (May 20, 2021).

특히 이러한 국가가 해외와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라면 더욱 인지조작은 어려워진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해외접속, 특히 국제적 SNS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권위주의 국가라면 정보차단과 정보조작을 통한 인지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한편 인지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 사물이나 무기체계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적 집단의 인지를 흔들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리적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이때 물리적 공격은 적은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적이 의존하는 인지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2. 인지전의 수단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전의 대상은 단순히 전투원에 제한되지 않고 전쟁 당사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수단 또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광역적 차원의 인지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이러한 요건에 맞는 수단이 된다.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방송, 신문, 잡지 등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공식적인 매체로서 모든 국가에 의해 활용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대중매체, 특히 언론사들은 국가적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적국을 점령하거나 자국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제일 먼저 점거하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송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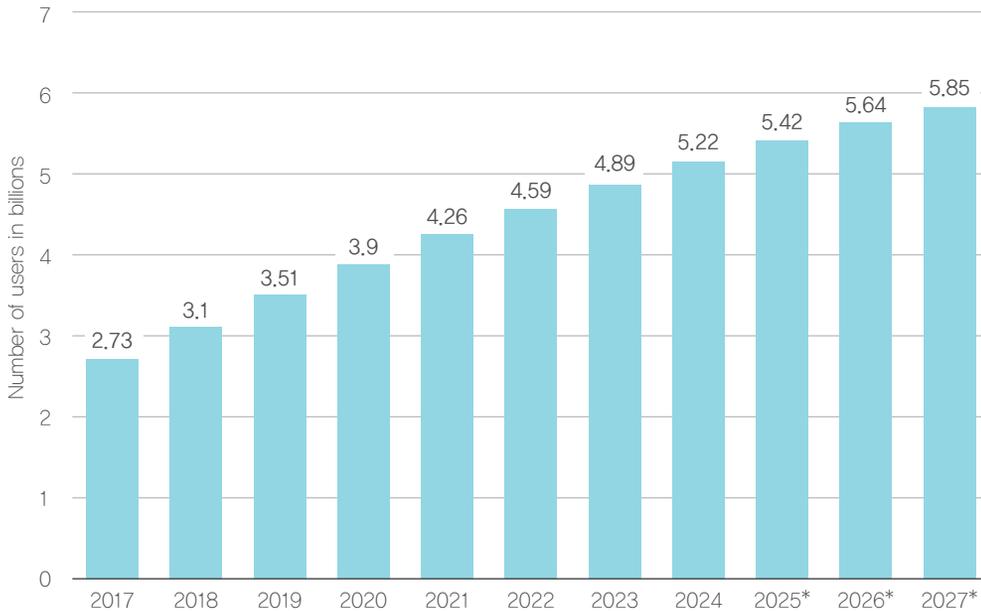
그러나 기존의 대중매체는 과거와 같은 독점적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특히 활자 매체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6천만 명을 넘기던 신문구독자가 2022년에는 20만여 명 수준으로 하락했다.⁶⁷ 우리의 경우 2002년까지도 무려 82.1%의 열독률(閱讀率)을 보이던 종이 신문이 2022년에는 9.7%까지 급락했다.⁶⁸

이에 응당 주목받는 것은 인터넷이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67. Pew Research Center, “Newspapers Fact Sheet” (November 10, 2023),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fact-sheet/newspapers/> (검색일: 2023.12.8.).

53억여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5.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SNS 사용자는 2022년 기준 45억 9천만여 명에 이르러 61.4%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⁹ SNS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32% 무려 1억 5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증가했다. 이는 매일 약 41만 명, 초당 4.7명의 사용자가 증가함을 의미한다.⁷⁰

[그림 12] SNS 사용자의 증가 추세 및 전망



* 2025~2027년 수치는 전망치임.

출처: Statista.

68. 열독률은 가정·직장·가판 등 모든 구독행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읽은 내용이 많은지 구매하여 읽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다; 장운재, “텔레비전 영락(零落)의 서막: 매체 이용률이 보내는 위험 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2.6.),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3658> (검색일: 2023.12.8.).

69.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적어 디지털 인구수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지도 공격수단으로 인터넷은 부적절하다; Ani Petrosyan, “Worldwide digital population 2023”, Statista (Oct 25,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17136/digital-population-worldwide/> (검색일: 2023.12.8.).

70. Annabelle Nyst, “134 Social Media Statistics You Need To Know For 2023”, *Search Engine Journal* (July 14, 2023).

미래의 증가세를 보면 인터넷, 특히 SNS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2017년에 불과 27억 3천만여 명에 불과했던 SNS 사용자들이 5년 후에는 무려 67%가 증가하여 45억 9천만여 명이 되었고, 10년 후인 2027년에는 114%가 증가한 58억 5천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⁷¹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단순히 개인의 소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국가, 심지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영향무기(Weapon of Mass Influence)’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인지전은 매체를 통한 콘텐츠 생산 이외에도 그 사용을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통상 사이버전(cyber warfare)의 역할로, 개전 직전이나 개전과 함께 실시되어 교전국의 혼돈을 가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버전은 해킹 부대를 통한 소프트웨어 상당수이지만, 해당 국가에 대한 인터넷 연결망이나 기지국 등 연결노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타격 작전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조금 더 한정되어 전술과 작전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군사적 수단과 당연히 결합한다.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은 기존의 심리전 수단에 더하여 바로 전자전과 사이버전 수단이다. 우선 전자전 수단은 전장에서의 인지에 해당하는 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센서들의 탐지능력을 감소시키거나 급격히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의 전장 인지능력에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사이버전 수단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대전의 지휘통신체계에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전자전과 사이버전의 구분이 더욱 희미해짐에 따라 사이버전자전으로 통합되고 있다.⁷²

이렇듯 인지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수행되므로, 각 수준에서 인지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조직 등을 사전에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지전에서 콘텐츠를 강조할 경우에는 내러티브에 특화된 전문가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콘텐츠 팜 등 다양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검색엔진 최적화를

71. Stacy Jo Dixon, “Number of global social network users 2017-2027”, Statista (Aug 29,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8414/number-of-worldwide-social-network-users/> (검색일: 2023.12.8.).

72. 송운수·조한승, “사이버억지 수단으로서의 사이버전자전 작전수행개념”, 『한국군사학논집』 Vol.77 No.1 (2021), pp.489~495.

위해서 콘텐츠를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듯 인지전의 수단을 준비함에 있어 주체가 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한정될 수도 없다. 평시에 잠재적 적국에 대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군대의 임무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임무는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일로,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중심을 잡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민관군 협력 조직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인지전을 대비하고 있다.

3. 인지전의 수행 방법

인지전은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수행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인지전 수행 절차가 등장할 것이지만, 현재는 내러티브, 프로파간다, 가짜뉴스 등의 3가지가 대표적인 인지전의 방법론으로 거론되고 있다.

1) 내러티브

우선 내러티브(Narrative)는 우리가 흔히 ‘서사(敍事)’라고 부르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반드시 사실일 필요도 없다. 마치 다양한 단서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탐정처럼, 내러티브는 추론의 과정이다. 즉 ‘과거의 이질적인 사건들을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고 과정’을 내러티브로 정의할 수 있다.⁷³

내러티브는 정보와 다르다. 정보가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내러티브는 정보가 갖는 사실적 의미와 함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러티브는 정보의 진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

73. J. A. Robinson & L. Hawpe, “Narrative thinking as a heuristic process”, T.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1986), pp.111~125.; He Xiuchuan, “The Role of Narrative Thinking in Design: Taking the Mathematical Hall of the London Science Museum as an Example”, *Design Research Society Proceedings* (2020), p.1098.

도록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인지를 조작하는 행위가 된다.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의미, 정체성, 콘텐츠, 그리고 구조이다. 우선 의미의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 다만 내러티브는 그 창조자가 애초에 만든 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전달자가 이를 바꿀 수 없도록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창조자의 몫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내러티브에는 표적으로 하는 집단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공감되기 어렵다.⁷⁵

다음으로 콘텐츠는 내러티브의 기반이다. 내러티브는 정보가 아니지만,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보, 즉 콘텐츠에 바탕해야 한다. 콘텐츠가 매력에 높을수록 내러티브의 전파력과 파괴력은 더욱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의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이야기에 서론-본론-결론이나 기승전결이 있듯이, 내러티브도 잘 짜인 구조가 있어야 내용을 표적집단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된다.

‘무기화된 내러티브(weaponized narrative)’는 스토리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해당국 정치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적대국의 제도, 정체성 및 의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⁷⁶ 물론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극적인 사례는 단숨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국의 특정한 행위들을 묶어서 내러티브로 만들어 이를 표적으로 하는 국가나 혹은 세계를 향하여 표명함으로써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러티브의 가치는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영향력에 있다. 일례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지는 질곡의 현대사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 주변국 침략과 푸틴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한다. 중국 역시 서양의 청나라 침공에서 공산 중국의 건국에 이르는 역사를 내러티브화하며, 자국의 약탈적인 대외 관계와 공산당·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합리화한다. 이처럼 인간의 감성과 시간성, 특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오거나 역사적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러티브 형성에서 흔히 활용되는 소재이다.⁷⁷

74. Ajit Maan, "Narrative Warfare," *RealClear Defense* (February 27, 2018).

75. Paul Cabaugh, "Narrative Warfare," *Medium* (January 22, 2019).

76. Calvin Peterson, Jr., "Weaponized Narrative: Exploring New Vocabulary for the Cognitive Domain Fight," *Air University* (June 2018).

2)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15세기에 종교의 교육과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치선전이라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간 본성을 부정하고 이를 ‘개조’하여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해, 독재국가들은 지도자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수정주의 국가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여전히 프로파간다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프로파간다는 “사상 또는 집단과 대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건을 새로 만들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설명된다. 즉 선전·선동은 고안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개념과 가치관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표적층중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다.⁷⁸

사실 프로파간다는 특히 감정을 자극하여 인지를 흐드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겉보기에는 내러티브와 유사해 보이지만, 내러티브만큼 복잡한 콘텐츠나 정교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프로파간다에 노출된 사람들이 인지와 행동을 바꿀 만큼 강한 충격과 파급력을 가지면 충분하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검증, 즉 팩트체크가 용이해졌다. 프로파간다가 과연 현대의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선거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취약점으로 비친다.

프로파간다는 선거에서 활용하기 매우 편리한 기재이다. ‘환상의 진실효과(illusionary truth effect)’로 인하여,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정보라도 반복되고 확산할수록 출처에

77. Naganuma Kazumi, “Warfare in the Cognitive Domain: Narrative, Emotionality, and Temporality,”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o. 163 (2021), p.11.

78. 데이비드 웰치, 이종현 역, 『프로파간다 파워 : 인간과 세상을 조종하는 선전의 힘』 (서울: 공존, 2015), p.12; 에드워드 버네이스, 강미경 역, 『프로파간다: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 (서울:공존, 2009), p.83.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결국 기정사실로 인식하게 된다.⁷⁹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나 공약에 대한 기억이 취약하고 순간의 정보로 투표 대상을 결정하는 오늘날의 경향을 고려하면, 프로파간다의 인지적 편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기재로 작동된다.

3) 가짜뉴스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 고속도로”로 일컬어지는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이 등장했다. 이러한 통신체계는 최초에는 데이터의 빠른 전달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신문과 텔레비전을 대체하여 대중매체의 핵심 전달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보 고속도로의 등장은 국가가 인지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적시에 주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정보고속도로가 가짜 뉴스(fake news)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중요한 전달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진실보다 평균 6배의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는 결과까지 발표되어,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⁸⁰

정보의 혼란(confusion)과 차단(blocking)은 상대의 전쟁인지를 흐리게 하여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게 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인지전의 대표적인 무대이며, 특히 최근에는 짧은 영상이 대중이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작전 개시와 동시에 가짜 뉴스를 대중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급속히 유포한다면, 전쟁에 대한 표적청중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표적청중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격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을 급격히 변경시킬 수 있다.⁸¹

79. Jonas De keersmaecker et al., “The Cognitive Shortcut That Clouds Decision-Making”, *MIT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2022), <https://sloanreview.mit.edu/article/the-cognitive-shortcut-that-clouds-decision-making/> (검색일: 2023.12.12.)

80. Devsena Mishra, “Psyche Behind the Internet, Information, Superhighways,” *Indian Military Review* (March 15, 2022); “Study: On Twitter, false news travels faster than true stories”, *MIT News* (March 8, 2018).

81. Josh Baughman, *op cit.*, pp.2~3.

V. 미래 국방전략 발전을 위한 제언

인지전은 현재 치열히 진행되는 전투이자 미래의 전쟁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75년간 북한과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여왔다.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냉전의 승리는 한반도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지상 최악의 정체체제라는 오명을 가진 북한 정권은 핵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지공격을 가하고 있다. 공격의 대상은 현재는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프로파간다와 가짜뉴스의 살포, 인터넷 댓글이나 SNS 포스팅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의 개입 등이다. 당장에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지만, 이러한 인지공격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그 결과는 폭발적일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남북 대화 기간에 김정은을 미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었던 일은 인지전의 위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⁸²

더욱 위험한 것은 북한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화와 전술핵 무기의 선제타격에 관한 내러티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을 위협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라면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겠지만, 트럼프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내러티브와 인지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에만 머물 수 없는 선진 중견국가다. 최근 거세진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적인 연대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가치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민주주의의 편에 섰다. 이는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우리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 권위주의 국가는 인지전 공세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

82. “‘소탈하고 귀엽다’…김정은 솔직 화법에 호감도 ↑”, 『CBS 노컷뉴스』 (2018.9.21.); “‘으니 귀여워’…이미지 변신 ‘김정은’에 지나친 미화 논란”, 『아시아경제』 (2018.5.1.); “‘김정은 피규어 귀엽다’… 종북 논란에 “생각 짧았다” 사과한 인디밴드”, 『조선일보』 (2018.11.12.)

우리는 이제 막 인지전에 대한 연구를 가속하고 있다.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이고, 연구 결과도 2023년에서야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지전은 단숨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거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하고 진화한 분야가 되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정책들에 더하여 국방혁신 4.0 이후의 개혁 정책에서 인지전과 관련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지전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지를 꺾고 나의 의지를 지속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도 어렵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전략과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전문인력과 새로운 체계(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중기적으로는 민관군 차원의 수행개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인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지전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표적이자 무기가 된다. 다만 무기는 손날이 아니라 머릿속의 사고, 혀끝의 말, 그리고 손끝의 기록이다. 첨단기술과 전문성도 인지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인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이다.

참고문헌

- 권태영·김푸름, “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77호 (2019).
- 국방부, 『국방비전 2050』(서울: 국방부, 2021).
-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서울: 북멘토, 2022).
- 김상배,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서울: 한올아카데미, 2009).
- “김정은 피규어 귀엽다”…종북 논란에 “생각 짧았다” 사과한 인디밴드”, 『조선일보』 (2018.11.12.).
- 나호영·최근대, “인공지능에 기반한 중국의 군사혁신: 지능화군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6집 제3권 (2020.10).
- “대만군, 중국공산당 1일부터 272건의 가짜뉴스 퍼뜨리려 해”, 『연합뉴스』 (2022.8.8.)
- 데이비드 웰치, 이종현 역, 『프로파간다 파워 : 인간과 세상을 조종하는 선전의 힘』(서울: 공존, 2015).
- 도종윤, 『러시아의 유럽 선거 개입논란: 팽창주의 전략의 새로운 버전?』(제주평화연구원, 2017.5.4.).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서울: 책세상, 2012).
- 마윌·구본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3권 제2호 (2023).
- “소탈하고 귀엽다”…김정은 솔직 화법에 호감도 ↑”, 『CBS 노컷뉴스』 (2018.9.21.).
- 송운수·조한승, “사이버억지 수단으로서의 사이버전자전 작전수행개념”, 『한국군사학논집』 Vol.77 No.1 (2021).
- 에드워드 버네이스, 강미경 역, 『프로파간다: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서울: 공존, 2009).
- 육군 교육사,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2022).
- ““으니 귀여워”…이미지 변신 ‘김정은’에 지나친 미화 논란”, 『아시아경제』 (2018.5.1.).
-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겨울호 (2018).
-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 통제”, 『서양사연구』 제66집 (2022).
- 장윤재, “텔레비전 영락(霧落)의 서막: 매체 이용률이 보내는 위험 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2.6.),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3658> (검색일: 2023.12.8.).

- 조상근,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SNS를 활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 『Naver 지식사전』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65> (검색일: 2023.12.11.).
- 조상근 외,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인지전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6 (2022.11.).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
- 차정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연구: 육군의 군사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1집 1호 (2021).
- 차오량·왕상수이, 이정곤 역,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서울: 교우미디어, 202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트렌드리포트] 딥페이크 기술의 빛과 그림자”, 『미디어 이슈 & 트렌드』 Vol.26 (2019.12.).
- “China begins ‘illegitimate, irresponsible’ live-fire military drills - Taiwan”, *Reuters* (4 August 2022).
- “Ukraine War: How Russia Took the South - and Then Got Stuck”, *BBC News* (February 27, 2023),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4718740>.
- “CNN Investigates: Forensic analysis of images and videos suggests rocket caused Gaza hospital blast, not Israeli airstrike”, *CNN International* (November 2, 2023).
- “Gaza hospital: What video, pictures and other evidence tell us about Al-Ahli hospital blast”, *BBC News* (October 19, 2023).
- “Join IDF International Spokesperson LTC Jonathan Conricus LIVE at an Israeli home struck by a rocket launched from Gaza which killed an Israeli civilian”, *idfonline @facebook* (2021.5.11.), <https://www.facebook.com/idfonline/videos/209110187688681/> (검색일: 2023.11.11.).
- Ajit Maan, “Narrative Warfare,” *RealClear Defense* (February 27, 2018).
- Alexander Marrow, “In Russia-Ukraine Faceoff, Both Sides Stage Combat Drills”, *Reuters* (November 25, 2021); “Russia to Pull Troops Back from near Ukraine”, *BBC News* (April 22, 2021).
- Alonso Bernal et al.,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Fall 2020).

- Andrey Volkov, “Cognitive Wars: Features of the Geopolitical Conflict in 21st Century,” *European Proceedings of Educational Sciences* Vol.1 (2020).
- Ani Petrosyan, “Worldwide digital population 2023”, Statista (October 25,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17136/digital-population-worldwide/> (검색일: 2023.12.8.).
- Annabelle Nyst, “134 Social Media Statistics You Need To Know For 2023”, *Search Engine Journal* (July 14, 2023).
- Arden B. Dahl, “*Command Dysfunction: Minding the Cognitive War*” (School of Advanced Airpower Studies, Air University, June 1996).
- Bellingcat Investigation Team, “Documenting and Debunking Dubious Footage from Ukraine’s Frontlines”, *Bellingcat* (February 23, 2022).
- Bernard Claverie & François Du Cluzel, “Chapter 2 - Cognitive Warfare: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Cognitics” in the field of warfare”, Edited by B. Claverie et al.,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NATO STO, 2022).
- Bernard Claverie, “Chapter 4 - What is cognition? And how to make it one of the ways of the war”, Edited by B. Claverie et al.
- Calvin Peterson, Jr., “Weaponized Narrative: Exploring New Vocabulary for the Cognitive Domain Fight,” *Air University* (June 2018).
- Department of Army, *FM 3-05.301 Psychological Operations: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December 2003).
- Devsena Mishra, “Psyche Behind the Internet, Information, Superhighways”, *Indian Military Review* (March 15, 2022); “Study: On Twitter, false news travels faster than true stories”, *MIT News* (March 8, 2018).
-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 and Roman Osadchuk, “Russian War Report: Hacked News Program and Deepfake Video Spread False Zelenskyy Claims”, *Atlantic Council* (March 16, 2022).
- Dmitry Adamsky, *Cross-Domain Coercion: The Current Russian Art of Strategy*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November 2015).
- Donald E. Elam, “*Attacking the Infrastructure: Exploring Potential Uses of Offensive Information Warfare*”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1996)
- Earshot.ngo, “<http://Earshot.ngo> performed a Doppler Effect analysis from two

- videos from the missile attack on the Al-Ahli hospital”, X (previously twitter) (October 20, 2023), https://twitter.com/earshot_ngo/status/1715381907230232929 (검색일: 2023.12.9.).
- Emily Bienvenue et al., “Cognitive Warfare”, *The Cove* (September 9, 2019).
- He Xiuchuan, “The Role of Narrative Thinking in Design: Taking the Mathematical Hall of the London Science Museum as an Example”, *Design Research Society Proceedings* (2020).
- Human Rights Watch, “Gaza: Findings on October 17 al-Ahli Hospital Explosion, Evidence Points to Misfired Rocket but Full Investigation Needed”, *Latest News* (November 26, 2023), <https://www.hrw.org/news/2023/11/26/gaza-findings-october-17-al-ahli-hospital-explosion> (검색일: 2023.12.8.).
- J. A. Robinson & L. Hawpe, “Narrative thinking as a heuristic process”, T.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1986).
- Jelmar de Kievit, “Reflexive Control in the Russo-Ukraine war: How Russia applied Soviet military theory to try and win a quick victory in 2022”, *Militaire Spectator* Vol.192 No.9.
-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Imperial College London,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NATO Review* (May 20, 2021).
- Joint Publication (JP) 3-0, Joint Campaigns and Operations, 18 June 2022.
- Jonas De keersmaecker et al., “The Cognitive Shortcut That Clouds Decision-Making”, *MIT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2022), <https://sloanreview.mit.edu/article/the-cognitive-shortcut-that-clouds-decision-making/> (검색일: 2023.12.12.).
- Jonathan McClory et al., *The Soft Power 30: A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2019*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 Portland, 2019).
- Josh Baughman, “How China Wins the Cognitive Domain,”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023).
- Julie Coleman, “Russian Operatives Sent 5,000 Text Messages in a Failed Attempt to Incite Ukrainians to Attack Their Own Capito”, *Business Insider* (April 1, 2022).
- Justin Bronk, Nick Reynold, and Jack Watling, “The Russian Air War and

- Ukrainian Requirements for Air Defence’, *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November 7, 2022).
- Katharine M. Rogers, *The Cat and the Human Imagination: Feline Images from Bast to Garfiel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 Keir Giles et al., *Russian Reflexive Control*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2018).
- Kenneth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Kimberly Orinx & Tanguy Struye de Swielande, “Cognitive warfare and the vulnerabilities of democracies”, *CECRI* No. 79 (2021).
- Mark Mateski, “Russia, Reflexive Control, and the Subtle Art of Red Teaming”, *Red Team Journal* (October 13, 2016), <http://redteamjournal.com/2016/10/reflexive-control/>.
- Matt Burgess, “Viasat Satellite Hack Spills Beyond Russia-Ukraine War”, *WIRED* (March 23, 2022).
- Mykhaylo Zabrodskyy et al., “Preliminary Lessons in Conventional Warfighting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February– July 2022”,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November 30, 2022).
- Naganuma Kazumi, “Warfare in the Cognitive Domain: Narrative, Emotionality, and Temporality,”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o. 163 (2021).
- Oliver Backes & Andrew Swab, *Cognitive warfare: The Russian threat to election integrity in the Baltic state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November 2019).
- Paul Cobaugh, “Narrative Warfare,” *Medium* (January 22, 2019).
- Pew Research Center, “Newspapers Fact Sheet” (November 10, 2023),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fact-sheet/newspapers/> (검색일: 2023.12.8.).
- Robert Reczkowski & Andrzej Lis, “Cognitive Warfare: what is our actual knowledge and how to build state resilience?”, *Bezpieczenstwo Security* No. 3 (2022).
- Rodger S. Pitt, “Realities of Space Age & the Realities of Carl von Clausewitz’s

- Theories of ‘Fog and Friction’,” *Army Space Journal* (Spring, 2008).
- Stacy Jo Dixon, “Number of global social network users 2017-2027”, Statista (Aug 29,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8414/number-of-worldwide-social-network-users/> (검색일: 2023.12.8.).
- Tzu-Chieh Hung & Tzu-Wei Hung,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A Frontline Perspective of Taiwan’s Anti-Disinformation War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7 No.4, (2020).
- US Army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6 December 2018).
-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oncept for Operating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JCOIE)* (25 July 2018).
- 沈寿林·张国宁, “认识智能化作战”, 『国防部网 军媒视点』(2018.3.1.), <http://www.mod.gov.cn/gfbw/jmsd/4805633.html> (검색일: 2023.11.30.).
- 国务院,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国发』35号 (2017.7.20.),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검색일: 2023.11.18.).

A S A N
R E P O R T

**결심체계를 뒤흔드는 인지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발행일 2025년 9월

지은이 양욱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13-7 95390 (PDF)



ISBN 979-11-5570-313-7